

보도시점 2025. 3. 17.(월) 19:00 (국제엠바고)

배포 2025. 3. 17.(월) 17:00

## 경제협력개발기구, 중간 경제전망\* 발표

\* 제목: “Steering through Uncertainty”(👉 해석: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기)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3.17일(월) 11:00(프랑스 파리 기준, 한국시각 19:00, 국제엠바고)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전망) 매년 2회(5~6월, 11~12월), 세계경제+회원국+주요 20개국(G20) 국가 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 중간 경제전망) 매년 2회(3월, 9월), 세계경제+주요 20개국(G20) 국가만 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4년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remained resilient), 최근의 경제활동 지표들은 글로벌 성장 전망이 완만해질 것(softening of global growth prospects)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무역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지속될 경우 글로벌 경제 성장 영향을 주고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수 국가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세계경제 성장은 높아진 무역장벽과 지정학적·정책적 불확실성 증대가 동반되면서 '24년 3.2%, '25년 3.1%, '26년 3.0%로 완만해질(moderate) 것으로 전망했다. '25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이전 전망치('24.12월 기준 3.3%)에 비해  $\Delta 0.2\text{p}$  하향조정 되었다. 국가·지역별로 보면, 미국의 경우 관세율 인상 발효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어 '25년 2.2%, '26년 1.6% 성장을 전망했다. 유로존의 경우 지정학적·정책적 불확실성이 성장을 제약하여 '25년 1.0%, '26년 1.2%의 성장을 전망했다. 중국의 경우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정책 지원 강화로 상당 부분 상쇄(largely offset)되면서 '25년 4.8%, '26년 4.4%의 성장을 전망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무역 개방도가 높은 점, 미국의 관세율 인상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캐나다는 '25년 0.7%, '26년 0.7%의 성장, 멕시코는 '25년  $\Delta 1.3\%$ , '26년  $\Delta 0.6\%$ 의 성장을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이전 전망보다는 높지만\* 경제 성장이 완만해지면서 여전히 둔화(still moderating)되어 G20 물가상승률을 '25년 3.8%, '26년 3.2%로 전망했다.

\* G20 물가상승률 전망치(OECD, '24.12월 기준→'25.3월 기준, %,%p<sup>괄호안</sup>):  
( '25년)3.5→3.8(+0.3) ( '26년)2.9→3.2(+0.3)

한국경제의 경우 '25년 1.5%, '26년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물가상승률은 '25년 1.9%, '26년 2.1%로 전망했다. 최근 무역장벽 확대 및 지정학·정책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주요국의 '25년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24.12월 전망치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한국의 '25년 성장률 전망치도 이전 전망치('24.12월 기준 2.1%)에 비해 낮아졌다.

\* '25년 성장률 전망치(OECD, '24.12월 기준→'25.3월 기준, %,%p<sup>괄호안</sup>):  
(세계)3.3→3.1(△0.2) (G20)3.3→3.1(△0.2) (유로존)1.3→1.0(△0.3) (미국)2.4→2.2(△0.2)  
(일본)1.5→1.1(△0.4) (캐나다)2.0→0.7(△1.3) (멕시코)1.2→△1.3(△2.5)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 심화(further fragmentation),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등을 지적했으며, 상방요인으로 관세 장벽 인하를 위한 합의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권고와 관련하여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이 높은 불확실성과 무역비용 상승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정부가 미래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규율(fiscal discipline)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무역 체계 내에서 우려 사항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 경쟁 촉진을 위한 구조 개혁, 인공지능 기술 확산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도 권고했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박정원 (044-215-2810)
		담당자	사무관	김문수 (sin20219@korea.kr)

※ 동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OECD 홈페이지(www.oecd.org)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세계경제 동향** 성장 회복세 유지(Remained resilient),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 '24년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등 대규모 신흥시장의 견고한 성장세(robust expansion)으로 회복세 유지(remain resilient)
  - 미국은 견고한 민간 소비에 힘입어 내수 성장이 굳건한(solid) 속도로 지속
  - 유로 지역은 프랑스와 독일의 수출 감소에 따른 4분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적 성장
  - 일본은 긴축적인 재정·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복세 유지(remained resilient)
  - 중국은 정부의 인센티브와 빠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민간 소비가 뒷받침되면서 성장률 개선
- 최근 경제활동 지표들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글로벌 성장 둔화를 시사
  - \* ①최근 무역정책 불확실성 증가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지표가 크게 상승  
②유로·美 서비스 부문 약세, 다수국가에서 소비자신뢰지수가 장기평균 수준 하회
  - 무역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지속될 경우 글로벌 성장에 타격을 주고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러 국가에서 계속되고 있음
- 글로벌 금융 여건이 다소 긴축적이고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

## 2] **세계경제 전망** 경제성장률 '25년 3.1%, '26년 3.0% 물가상승률 '25년 3.8%, '26년 3.2% (G20 기준)

-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며, 무역장벽 강화, 지정학·정책적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가계지출에 부정적 영향 우려
  - \* (미국) 관세율 인상 발효에 따라 성장세 둔화 예상 → '25년 2.2%, '26년 1.6%  
(유로존) 지정학적·정책적 불확실성이 성장세 제약 예상 → '25년 1.0%, '26년 1.2%  
(일본) 기업 이익 호조와 임금 상승 영향 → '25년 1.1%, '26년 0.2%  
(중국)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정책지원 강화로 상쇄 → '25년 4.8%, '26년 4.4%

- 특히 대미 무역비중이 높은 캐나다·멕시코에 큰 타격 예상
- \* 미국은 캐나다·멕시코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율 25%p 인상 조치 발표 → (캐나다) '25년 0.7%, '26년 0.7% (멕시코) '25년 △1.3%, '26년 △0.6%
- G20 물가상승률은 무역 비용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등으로 기존 전망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3] [한국경제 전망] 경제성장을 '25년 1.5%, '26년 2.2%  
물가상승률 '25년 1.9%, '26년 2.1%**

- 한국의 성장세는 유지될 것이나, 기존 예상보다는 완만해질 전망
- \* "Growth in both Korea and Australia is projected to hold up, but to be weaker than previously expected."

**[4] [위험요인] 무역장벽 확대, 인플레이션 지속 등**

- 하방요인으로 ①무역 장벽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 가능성, ②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통화정책 제약 및 금융시장 변동성, ③국방비 등 지출에 따른 장기적 재정압박 우려 등 존재
- 다만, 향후 관세인하 합의, 지정학적 분쟁 해결 등은 상방요인

**[5] [정책권고] 인플레 대응(통화정책) 및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재정정책)**

-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 교역비용 상승 우려를 감안하여 근원 인플레이션이 계속 억제되도록 주의 깊게 대응 필요
- (재정정책)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향후 재정충격·지출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규율 확보 필요
- (국제협력) 무역장벽 확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공급망 다변화 등 회복력 강화도 병행할 필요
- (구조개혁) 경쟁제한적 규제 철폐 등을 통해 생활수준을 향상하고 인공지능 기술 확산 등을 통해 생산성 제고 필요

## 참고 2

## 「OECD 중간 경제전망」(성장률, G20 국가)

(%, %p)		'25년 전망			'26년 전망		
전망시점	'24년	'24.12월 (A)	'25.3월 (B)	조정폭 (B-A)	'24.12월 (A)	'25.3월 (B)	조정폭 (B-A)
전세계	3.2	3.3	3.1	△0.2	3.3	3.0	△0.3
G20	3.3	3.3	3.1	△0.2	3.2	2.9	△0.3
유로존	0.7	1.3	1.0	△0.3	1.5	1.2	△0.3
호주	1.1	1.9	1.9	0.0	2.5	1.8	△0.7
캐나다	1.5	2.0	0.7	△1.3	2.0	0.7	△1.3
독일	△0.2	0.7	0.4	△0.3	1.2	1.1	△0.1
프랑스	1.1	0.9	0.8	△0.1	1.0	1.0	0.0
이태리	0.7	0.9	0.7	△0.2	1.2	0.9	△0.3
스페인	3.2	2.3	2.6	0.3	2.0	2.1	0.1
일본	0.1	1.5	1.1	△0.4	0.6	0.2	△0.4
한국	2.1	2.1	1.5	△0.6	2.1	2.2	0.1
멕시코	1.5	1.2	△1.3	△2.5	△1.6	△0.6	△2.2
튀르키예	3.2	2.6	3.1	0.5	4.0	3.9	△0.1
영국	0.9	1.7	1.4	△0.3	1.3	1.2	△0.1
미국	2.8	2.4	2.2	△0.2	2.1	1.6	△0.5
아르헨티나	△1.8	3.6	5.7	2.1	3.8	4.8	1.0
브라질	3.4	2.3	2.1	△0.2	1.9	1.4	△0.5
중국	5.0	4.7	4.8	0.1	4.4	4.4	0.0
인도	6.3	6.9	6.4	△0.5	6.8	6.6	△0.2
인도네시아	5.0	5.2	4.9	△0.3	5.1	5.0	△0.1
남아공	0.6	1.5	1.6	0.1	1.7	1.7	0.0

### 참고 3

### 「OECD 중간 경제전망」(소비자물가, G20 국가)

(%, %p)		'25년 전망			'26년 전망		
전망시점	'24년	'24.12월 (A)	'25.3월 (B)	조정폭 (B-A)	'24.12월 (A)	'25.3월 (B)	조정폭 (B-A)
G20	5.3	3.5	3.8	0.3	2.9	3.2	0.3
유로존	2.3	2.1	2.2	0.1	2.0	2.0	0.0
호주	3.2	2.3	2.4	0.1	2.6	2.2	△0.4
캐나다	2.4	2.0	3.1	1.1	2.1	2.9	0.8
독일	2.5	2.0	2.4	0.4	1.9	2.0	0.1
프랑스	2.3	1.6	1.5	△0.1	1.8	1.8	0.0
이태리	1.1	2.1	1.7	△0.4	2.0	1.9	△0.1
스페인	2.9	2.1	2.5	0.4	2.0	2.1	0.1
일본	2.7	1.9	3.2	1.3	2.1	2.1	0.0
한국	2.3	1.8	1.9	0.1	2.0	2.1	0.1
멕시코	4.7	3.3	4.4	1.1	3.0	3.5	0.5
튀르키예	58.5	30.7	31.4	0.7	17.2	17.3	0.1
영국	2.5	2.7	2.7	0.0	2.3	2.3	0.0
미국	2.5	2.1	2.8	0.7	2.0	2.6	0.6
아르헨티나	117.8	29.8	28.4	△1.4	25.1	24.8	△0.3
브라질	4.4	4.2	5.4	1.2	3.6	5.3	1.7
중국	0.2	1.1	0.6	△0.5	1.4	1.4	0.0
인도	5.0	4.2	4.5	0.3	4.0	4.1	0.1
인도네시아	2.2	2.2	1.8	△0.4	2.4	2.8	0.4
남아공	4.4	3.9	4.0	0.1	4.5	4.6	0.1